

여학생 운동을 잘 풀어 나가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전여대협 한마당」이 28일 오전 10시 ~ 오후 2시까지 열립니다.

꼭-꼭 읽어보시고,
함께 참여합니다.



안녕!

한총련 출범식,
부문제연 운동 문답시간이 기대된다.
나영주 의장님. 사랑해요 -잉!

여성운동이란?

우리는 여학생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여성운동을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운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맛만보고 갑시다.

여성문제란 여성이기때문에 가지는 억압과 모순의 총체, 즉 여성이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과정에 서 나서게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모순은 타파하고 여성을 자주적인 주체로 일으켜 세우고자하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을 남녀평등 운동으로 이야기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그것은 서구의 자유주의 여성운동이나 급진주의 여성운동이 우리나라에 무비판적으로 도입되어 관제 어용적인 여성운동만이 존재하면서 영향을 미쳤던 결과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갖던 여성운동은 80년대 중반이후 민족민주운동으로서 자기전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모순의 해결은 여성이 존재하는 사회현실과 더불어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광범위한 여성들이 사회모순에 눈을 뜨고 투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성문제의 이해

여성문제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때로는 의존적이고 모자란 것이 여성의 아름다운인양 애기되기도하고 2중 3중의 역할을 거뜬히해내는 슈퍼우먼이 진정한 여성인양 묘사되기도 합니다. 방송매체에서, 교육에서, 법에서, 노동현실에서..... 사회 어느 한구석까지 지지않고 여성은 다양한 요구를 받습니다. 사회재생산의 임무와 동시에 모권이 박탈당하고 직장으로 나서야하는 동시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여성은 다시 궁지에 몰립니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약한여자가 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성폭력에 몸을 사려야하는 여성! 이외에도 여성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무수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억압의 기원과 여성운동

왜 이러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남자에 의한 여성의 착취때문일까요, 사회적 구조때문일

까요, 아니면 또다른 이유때문일까요?

여성억압의 기원을 밝혀내는 것은 곧 여성문제의 해결 방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연관되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성억압의 기원과 그것의 해결방도 모색하는 방향에 따라 이 1 여성해방이론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여성해방이론', '급진주의 여성해방이론', '맑스주의 여성해방이론',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론'. 위의 4가지 여성해방이론은 각기 나름의 이론체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성모순과 사회전체적 모순을 어떻게 연관시켜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여성문제는 본래 착취계급의 발생과 그 시기를 같이하는 매우 오래된 문제입니다. 무계급 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진화하면서 그때까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로만 인식되던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차이로 옮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의 착취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형태로 여성차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역사의 매시기 여성차별의 구체적 형태와 주요한 지배 세력이 바뀌기는 했어도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여성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배 세력은 성차이를 구실로하여 자기의 지배세력을 온존강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을 부당하게 유린해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성문제는 단순한 여성대 남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 개혁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우리가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여성운동이 발생 전개하는데 여러가지 원인 중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원으로 여성문제는 전체 사회변혁의 과제와 함께 풀어나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기되는 것이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부문 계열 운동에 대해짚고 넘어갈까요!

- 부문계열 운동

한마디로 말해서 부문계열운동이란 사회적 처지 이외의 또다른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전공별 특성에 따라서 근거하는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입니다.

부문운동과 계열운동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문운동: 일차적으로 가지는 처지에 기반하면서 또다른 위치에 속하여 벌이는 운동으로서 여학생운동이 그 대표적 예인데 이것은 학생이라는 처지와 더불어 여성으로서 겪게되는 사회적모순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밖의 문화 운동, 종교운동 등이 있습니다.

· 계열운동: 운동의 종적개념으로 일차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심화시켜내는 운동으로 학생내의 사범대학학생연합회나 음악대학 학생연합을 들수있습니다.

사회변혁 운동에서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운동은 여성이 직접당하는 여러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는 운동입니다. 여성운동은 전체 사회변혁을 지향하되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에게 중첩된과제와 조직적으로 싸워야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급모순 혹은 민족모순이 해결된다고 해서 여성문제가 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으며 또한 여성 문제의 해결은 사회모순해결의 의지없이 이루어질 수없습니다.

여학생운동

그러면 우리가 대학사회내에서 풀어나가고자하는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하는 주체의 노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이러한 주체의 노력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여성문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여성에게 해지는 모든 고통과 억압 착취를 거부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므로 여학생운동을 달리 말하면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자주적 지향과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여대생은 겉보기에는 기층 민중여성의 선망이 되는만큼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여대생의 존재는 자유로와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릅니다. 첫째로, 여대생은 근로 여성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의식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 결국은 지배자의 의도대로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대다수 여성들에게 '결혼 제일주의'를 갖게 하며 이것은 여대생들에게 또한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 환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의식은 학문보다는 상품 광고에서 조장하는 아름다운 여성, 사치와 허영심을 더 가짐으로써 소비적인 인간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은 청년학생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학문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떨어뜨리게 하며, 사회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각종의 집회에서 남학생들의 모습이 월등히 많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둘째로, 여대생은 같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남학생들보다 사회적 진출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취직하였다 하더라도 여성차별과 승진기회 박탈, 모성보호의 소홀 등으로 사회는 여성을 가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유포와 여성정책은 여성의 노동력을 초과 착취하는 것을 아주 용이하게 하며, 전체 노동자 임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 여성들과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될 여대생들에게 모두 닥치는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대생은 모든 자치 활동으로부터 그 제약을 받습니다. 여성차별 정책은 교과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 교육과정을 마친 여대생은 스스로 왜곡된 의식에 길들여져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극성, 수동성,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관성화된 점은 모든 자치활동, 학문활동 등에 동참하지 못하고 입장없이 따라가는 여대생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에 길들여진 인식 이외에도 남녀차별 의식은 학원내에서도 불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남성위주의 문화풍토 공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대생의 문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부터 파생된 문제임으로 여대생 스스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풀어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여대협, 전여대협에 관하여

앞에서도 말했듯이 학원내에서 풀어야 할 여성문제는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에 여성들의 조직적 힘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각 대학에는 총여학생회가 건설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모아 지역단위 여대협(여학생 대표자 협의회)과 최고 단위로 전여대협(전국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의혈중앙은 수여대협(수원지구 여대생 협의회)의 가입학교로 수여대협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지역에서 여성운동의 관점을 가지고 학생운동의 차원에서 여학생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는 수여대협은 전체 운동 속에서 여성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해명해 나가며 각 캠퍼스의 처지와 이해에 따르는 역할 속에서 고립되고 분산되는 운동을 막고 통일단결의 연대체계를 가진 학간 연대체계조직입니다. 수원지역 1만 6천여 여학우들의 구심인 수여대협은 89년 9월 건준위가 만들어진 이후로 제 6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간 보은 진관 투쟁이나, 윤금이씨 투쟁에서 그 모범을 보여왔고, 올해는 경인여대협을 건설하고자 하는 고민을 갖고 제10대 한양대 총여학생회장님을 의장님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전여대협은 각 총여학생회의 조직적 성과를 바탕으로 89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보은 진관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추방 투쟁과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투쟁, 그리고 여학생운동으로써 통일운동에 대한 시도, 정신대 문제 진상규명과 보상처리 문제 등 여학생회의 자기 내용성에 근거한 사업들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윤금이씨 투쟁을 통한 주한미군 범죄 근절 투쟁에도 앞장섰으며, 올해는 양애리씨 사건과 이순심씨 사건에 근거한 가정폭력 척결 문제를 과제로 삼으며, 부산대 총여학생회장님을 의장님으로 옹립했습니다.